

‘걱정없이 농사 짓는 강진 만들기’ 박차...농업예산 증액

강진군, 원예·특작 분야 등 지난해보다 22% 늘린 797억 편성 공동급식·소득 보전 위한 식량작물 생산·농기계 지원 사업 등

강진군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농정 분야 예산을 바탕으로 ‘근심 걱정 없이 농사 짓는 강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023년 농정 분야 예산을 전년 618억원 대비 22% 증액한 797억원을 편성했다.

증액한 예산은 모두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을 반영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곳당 전년

도 294만원에서 320만4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강진 전체 80곳에 지원한다. 기존 20~75세 여성 농업인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군비를 더해 76~85세 여성 농업인들에게 10만원씩 확대 지원한다. 사실상 전 연령대에 걸쳐 지원하는 셈이다. 벼농사의 영농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득 보전을 위한 식량작물 예산 544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대비 84억9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벼 경영안정자금 81억원과 벼 육묘비용 지원 쿠폰 14억1000만원을 6400여 농가에, 공익수당 51억4000만원을 8578

농가에 지원 완료했다. 영농에 필수인 농기계 관련 지원도 늘렸다.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 상향 조정과 함께 드론 26대, 농업용 굴착기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또 비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 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을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ha당 30만원을 지원하던 유기농 벼는 40만원으로 늘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유기농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32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저소득층의 식생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7억8100만원도 투입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농업 관련 예산은 농가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지원책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이 근심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정남진토요시장~예양공원~읍성 장흥읍 서부권역 활성화 나선다

군, TF 2차 보고회

장흥군이 정남진토요시장과 예양공원, 장흥읍성으로 이어지는 서부권역 개발에 나선다. 군은 최근 ‘장흥읍 서부권 발전 정책개발 태스크포스’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 조직은 조석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팀 26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장흥읍 서부권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선진지인 ‘군산 비어포트’ ‘예산시장’ ‘포천 허브 아일랜드’, ‘경주 황리단길’, ‘진주 남강’ 등을 답사했다. 2박 3일간 벌인 선진지 답사에서는 지역 먹거리와 야간 경관,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태스크포스는 장흥읍 서부권이 재도약하기 위한 사업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흥읍 남동리 예양공원에 대해서는 장흥읍성을 잇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꽃다지를 조성하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960대 조성된 예양공원은 봄이면 벚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이 몰리는 곳이다. 지난 2020년에는 전남도로부터 지역 혁신 전략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원 안에는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격전지 석대들 전적 등 사적지가 있어 이를 기리기 위해 공원 명칭을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정했다. 장흥읍성에는 탐방로를 조성하고 ‘장원봉’과 ‘장



장흥읍 남동리 예양공원 국유림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원사’에 얽힌 이야기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토요시장에는 ‘찾아가는 테라피’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장흥군은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안을 구체화하고 서부권역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조석훈 부군수는 “토요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장흥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산 방울토마토 안심하고 드세요

‘쓴맛 토마토’ 여파 소비자 외면...판로 확대·소비 촉진운동

전남에서 방울토마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담양군이 ‘쓴맛 토마토’ 사태 돌파에 나선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날 평균 대추방울토마토 3kg(특) 한 상자 도매가는 1만7557원으로, 전달 평균 가격(2만7532원)보다 36.2%(-9975원) 급락했다. 지난달 일부 품종 방울토마토를 먹은 소비자들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 이른바 ‘쓴맛 토마토’ 논란이 벌어졌는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품종마저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담양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234개 농가가 94.1ha 면적 규모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 농가가 생산한 방울토마토는 모두 4927t이다. 담양 방울토마토 생산량은 전남 전체 생산량(1만8747t)의 26.3% 비중을 차지하며 전남 사

군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소비 급감 속에서 연일 이어지는 파뒀 한 날씨로 인해 토마토 생산량이 증가하며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마토의 평당(3.3㎡) 평균 생산량은 5.06kg으로, 지난 1월(2.16kg)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 담양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방울토마토가 집중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5일에는 담양리조트에서 방울토마토 소비 촉진·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지역농협, 방울토마토 작목회 등과 협력해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성에 ‘수(手)상한 미용실’ 있다

미용업소·복지기동대, 경로당 찾아 미용 봉사·복지 상담



장성군 남면에 어르신들을 위한 ‘수(手)상한 미용실’이 운영돼 이목을 끌고 있다. ‘수상한 미용실’은 지역 미용업소와 복지기동대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5일에는 미용업소 두 곳과 남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등이 함께 불정경로당을 찾았다. <사진> 봉사자들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찾기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초대해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한편에서는 복지기동대와 면 공무원이 복지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이발을 마친 한 어르신은 “한 번 머리를 자르려면 큰 마음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도 들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한 미용실’은 이날 활동을 시작으로 남면 지역 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영중 남면장은 “재능 기부에 감사드리며 남면을 대표하는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나비축제서 귀농 상담 받아볼까

28일~5월 7일 ‘나비의 문’ 광장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상담 공간이 마련된다. 함평군은 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리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상담 공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공간은 함평엑스포공원 안 ‘나비의 문’ 광장에 마련된다. 귀농·귀촌 전문 상담사가 행사 기간 상주해 상

담을 발일 예정이다. 함평군은 나비대축제를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관람객 1000명에게는 귀농·귀촌 캐릭터가 있는 휴대폰 손잡이를 제공한다. 지역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대축제에 방문해 꽃과 나비도 보고 귀농·귀촌에 대해 궁금했던 점도 마음껏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서광주농협